

9일 연속 전세계 넷플릭스 1위 '지금 우리 학교는' 이재규 감독

“좀비 통해 사람에 대한 희망 이야기 그려”

사회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사건 모티브 “시즌 2 나온다면 좀비들 생존기 될 것”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 한국 장르물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인기 웹툰이 원작으로,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후 하루만에 전세계 넷플릭스 1위(플릭스파트너 넷플릭스 오늘 전세계 톱 10 TV프로그램 부문 집계 기준)에 오른 후 지난 6일까지 9일 연속으로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을 연출한 이재규 감독은 7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한 후 “저는 사람을 믿고 싶고, 희망을 찾으려는 쪽”이라며 “드라마에서 말하는 좀비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희망도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버티려 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극적인 재미와 같은 큰 끌자는 웹툰에서 가져왔다고 했다.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사람을 물어뜯는 좀비들로 아수라장이 된 학교는 디스토피아로 그려졌다.

그는 “비극을 통해 우리가 행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고, 시청자들이 바라보며 폭력의 비극을 느끼길 바랐다”며 “어른이 돼서 그 뜨거운 마음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상기시키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학교 폭력이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지만, 학교와 사회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집단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보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교복 입은 학생들과 좀비들이 고립된 학교에서 방송실, 도서관, 과학실 등 곳곳을 옮겨 다니고, 복도를 내달리는 액션 장면들은 좀비 발생 상황을 시청자가 생생하게 목도하는 느낌을 받도록 연출했다고 했다. 감독 의도대로 이런 장면은 역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폭력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에는 “원작은 훨씬 강한 부분이 많았는데 영상화하면서 순화를 시켰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만들었다”며 “청소년 시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주제 의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학교 폭력 피해 여학생이 성 착취 동영상에 찍힌 장면이나, 화장실에서 남몰래 출산한다는 설정 등이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우리 사회에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를 단순하게 보



이재규 감독

여워서 시청자를 자극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과하게 전달됐거나 불편한 분들이 있었다면 연출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조 요청을 해도 오지 않는 어른들, 컴퓨터에 마지막이 될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는 학생들의 모습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도 하는데 이 감독은 특정 사건만을 모티브로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들이 녹아있다”며 “우리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난 모든 사건이 모티브”라고 설명했다.

드라마에는 딸 온조를 구하려는 아버지, 아들 청산이 격정돼 무작정 학교로 뛰어가는 어머니가 보여주는 가족애와 온조와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청산의 러브라인 등 평범한 정서도 녹아있다.

이 감독은 “좀비 마니아만 보는 좀비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좀비물도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드라마는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각각 처한 상황을 보여주며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친구를 죽음으로 모는 ‘빌런’ (약당) 역의 나연은 사지에 몰려 “기뻐 못이 없다”고 읊조리고, 좀비에게 물린 뒤 인간의 모습을 유지한 채 절반만 좀비가 된 이른바 ‘절비’는 사람들 세계에 속하지 못한다.

이 감독은 “피해자, 가해자 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연의 대사를 보면 사회가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싶고, 극소수의 살아있는 좀비와 대다수의 인간 집단이 부딪치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드라마가 공개 직후 연일 넷플릭스 TV쇼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기하고 열렬하다. 예상은 못했지만, 진심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정서나 이야기들을 느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좀비물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좀 더 새롭게 다가갈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절친이라고 밝히며 “‘오징어 게임’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황 감독이) ‘내가 문을 살짝 열어 둔 건데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지금 우리 학교는’이 ‘오징어 게임’ 뒤를 잇는 작품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감독과 황 감독은 서울대 신문학과 동문이다.

이 감독은 시즌 2 제작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시즌2를 연계해두고 설정해 둔 부분이 있어서 시즌 2가 나온다면 좀비들의 생존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전복 먹으러 갈래’

가수 영탁 10일 신곡 발표

트로트 가수 영탁(사진)이 오는 10일 신곡 ‘전복 먹으러 갈래’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밀라그로가 7일 밝혔다.

이 곡은 영탁이 출연 중인 채널A 예능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에서 일부 공개된 노래다. 영탁은 앞서 “방송에서 (곡이) 잠깐 공개됐는데 사랑을 받아 싱글 발매가 결정됐다”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소속사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탁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한 뒤 “예능에서 보여준 유쾌한 모습과 달리 성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색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탁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선(善)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가수뿐 아니라 작곡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나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누나가 딱이야’ 등의 곡이 잇달아 히트하며 사랑 받았다. /연합뉴스



MBN, 직장-취준생 매칭

예능 ‘캐취업’ 27일 첫 방

기업과 취업준비생을 매칭해주는 신개념 취업 예능이 시청자들을 만난다.

MBN은 직장인과 인재를 매칭해주는 채용 오디션 프로그램 ‘매칭본부 캐취업’ (이하 캐취업)을 27일 첫 방송한다고 7일 밝혔다.

‘캐취업’은 일방적으로 기업이 사원을 선발하는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준비생에게는 꿈을 펼칠 기회를, 기업에는 회사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연결해주는 쌍방향 매칭을 목표로 한다.

취업준비생 9명과 GS리테일, 한국피자헛, 엔터테인먼트인 인앤엠씨 3개의 기업이 매칭에 참여한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MC에는 방송인 조우종과 걸그룹 ‘여자친구’ 출신 예린이 발탁됐다.

조우종은 과거 ‘MC 서바이벌’에 출연했던 경험을 살려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매칭본부 본부장으로, 예린은 열정 넘치는 1호 사원으로 활약한다. /연합뉴스



예린(왼쪽)과 조우종.

‘해적:도깨비 깃발’ 2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

누적 관객 108만6000여명

‘킹메이커’ 61만 6000여명

설 연휴 이후 신작이 사라지고 관객 수는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해양 어드벤처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이 2주 연속 주말 박스

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해적’은 지난 주말 사흘(4~6일) 동안 16만4000여명(매출액 점유율 41.8%)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6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108만6000여명이다. 1960~1970년대 선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킹메이커’가 10

만8000여명(27.7%)의 관객을 더하며 2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은 61만6000여명이다.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은 4만5000여명(10.1%)의 관객으로 3위를 유지하며 누적 관객 749만9000여명을 기록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 ‘쌍2게터’ (4만5000여명·7.5%)와 어린이 애니메이션 ‘극장판 언젠가 자두야:제주도의 비밀’ (1만8000여명·4.2%)이 뒤를 이었다. 지난주에는 박스오피스에 진입한 신작 없이 설 연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40만4000여명으로, 전주(69만3000여명)보다 40% 이상 줄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